

2020 년 12 월 19 일 "(성경의 큰 숲 보기 22) 선지자들과 그들의 시대"(렘 1:4-10)

<도입>

오늘은 구약 선지서 17 권에 대한 개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들의 시대의 특징과 선지자들의 사역의 열매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날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대선지서(이사야~다니엘, 4 권)과 소선지서(호세아~말라기, 12 권)은 단순히 글의 양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더 크고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들 사역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거부 당하니까 힘들었고, 육적, 정신적으로는 죽임까지 당하므로 고난이었습니다.

[1] 선지자와 그의 시대 (pptx 그림) - 역사적 시간순

구약에 배치된 선지서의 순서는 역사의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 시대를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설교 슬라이드 프린트 참고).

| | |
|----------------------------|---------------------|
| (북) 엘리야 876-62/엘리사 862-796 | 스바냐 636-623 |
| (북) 요나 784-772 | 하박국 621-609 |
| (북) 아모스 767-755 | 예레미야(+애가) 627-574 * |
| (북) 호세아 755-714 * | 다니엘 605-536 * |
| (남) 오바댜 841-825 | 에즈겔 593-559 * |
| 요엘 825-809 | 학개 520-505 ** |
| 이사야 739-681 | 스가랴 620-489 ** |
| 미가 733-701 | 말라기 435?-415? ** |
| 나훔 650-620 | (* 패망 경험 ** 귀환 경험) |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예언자)이지만 미래를 점친다는 뜻이 아니라 대언자(messenger)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말씀 속에 예언적 요소가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 선지자는 많은 갈등과 번뇌를 겪었습니다(5-10 절 살피기).

이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분명한 만남과 확신이 있고 전할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부르심의 시기, 사역의 내용, 끝낼 임기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에 대한 인도와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변천하는 시대의 정황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주전 922 년 왕국 분열 -> 722 년 북스라엘이 앗시리아 제국에 패망 -> 586 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포로)-> 536 년 포로 70 년 후 페르시아 제국의 귀환 선포 및 귀환

귀환 후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의 영적 부흥도 경험했지만 이내 말씀의 본질인 생명은 못 찾고, 말씀을 지켰는가, 어겼는가의 씨름에 매달리게 되어 형식주의(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당시 발흥한 신흥 세력(바리새파)이 율법주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 시기마다 필요했던 것

시대마다 이스라엘은 제국들의 위협으로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겪는 불안은 긍정적이고 풍성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끝없는 불안과 분노와 폭력과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만나고 말씀 묵상을 통해 힘을 얻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상을 따랐습니다. 우상의 대상은 이방신, 도와줄 이웃 나라, 또는 세속적/인간적 힘과 술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에서 되새김질 되어서 행동과 방식으로 표출되어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삶의 힘을 얻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지금 살 길은 아니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대언이 실효성이 없다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샤마, “들으라”와 슈브,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토록 들으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지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선지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총평은 이러합니다.

마 23:35-36(읽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성전파괴(AD 70)로 말미암아 어떤 환란을 겪으며 책임을 질 것인지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식 표현은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 계속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선지서 말씀과 연결된 고리입니다.

<맺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 그 분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삶의 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복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외친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도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 회개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아래의 질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질문과 함께 토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전 1000 년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 도표(또는 테이블)를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 또한 짚어보세요.
2.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샤마와 슈브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메시지에 사활을 걸겠습니까?